

프랑스 관광시장 동향 (8월)

'26. 8. 28 (금) / 파리지사

□ 프랑스 관광 소비자 동향

○ (일반 동향) 여름 휴가 예약 감소 및 장거리 여행수요 위축

- 프랑스 여행업협회(Entreprises du Voyages)와 여행유통 플랫폼 Orchestra가 발표한 '26.8월 여행예약 동향에 따르면, 8월 출발 여행 상품 예약건수는 전년 대비 9.1%, 매출액은 7.5% 감소한 반면 평균 예약금액은 2,289유로(한화 약 389만원)로 1.7% 상승함.
- 특히 장거리 여행 예약은 전년 대비 18.1% 감소하여 중·단거리 (-4.9%)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미국(-23.8%), 이탈리아(-14.3%), 그리스(-11.8%) 등의 예약이 감소한 반면 스페인(+3.5%), 모로코(+3.2%), 몬테네그로(+36.9%), 알바니아(+258.2%) 등 일부 중·단거리 목적지는 증가함. 한편, 7월 실제 출발 실적에서 일본은 28.3% 증가하여 장거리 수요 위축에도 일부 아시아 목적지에 대한 프랑스인 여행수요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임.

○ (소비양극화) 소득수준에 따른 휴가 참여 및 여행횟수 격차 확대

- 국립휴가수표기관(ANCV) 의뢰로, 프랑스 생활여건연구센터(CREDOC)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5년 15~69세 프랑스인의 63%가 최소 1회 이상 휴가여행을 떠난 반면 약 37%는 한 차례도 휴가를 떠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고소득층의 43%가 연중 여러 차례 휴가여행을 떠난 반면 전체 평균은 21%에 그쳐 소득수준에 따른 여행횟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물가 및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여행 여부뿐만 아니라 여행횟수·기간·목적지 등 관광소비 전반에서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기후변화) 폭염으로 북부 해안·산악지역으로 쿨케이션 수요증가

- 프랑스관광업협회(Alliance France Tourisme)가 발표한 '26년 여름 관광시장 분석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영불해협(La Manche) 연안과 산악지역으로 여름 관광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남. 특히 르아브르(Le Havre)-코트도팔(Côte d'Opale)에 이르는 영불해협 연안의 7월 숙박점유율은 전년 대비 4.5% 상승하여 프랑스 해안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10% 상승함. 8월에도 해당 지역의 숙박점유율이 90%를 상회했으며, 노르망디 전체 숙박점유율도 전년 대비 2.6% 증가함.
- 프랑스 관광업계는 폭염과 함께 구매력 부담에 따른 근거리 여행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북부 해안 및 산악지역이 새로운 여름 휴가지로 부상하는 것으로 분석함. 기후변화가 프랑스인의 휴가지 선택과 국내 관광수요의 지역적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음.

□ 프랑스 관광정책 동향

○ (지역관광 개발) 관광·환경·지역경제를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 지원

- 프랑스관광개발청(Atout France)은 지역관광개발사업(France Tourisme Ingénierie Régions)을 통해 지역 관광사업의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개발 컨설팅과 투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프랑스 국토은행(Banque des Territoires)의 재정지원을 받아 프랑스 1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대표 사례로 로제르(Lozère) 지역의 멸종위기 야생마 보전단체(TAKH)는 약 6년간 총 250만 유로(한화 약 42.5억 원)를 투자받아 기존 시설을 과학연구·방문객 체험·숙박 등이 가능한 생태관광센터

(Hameau du Villaret)로 개장함.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MICE, 체류형 자연·과학관광 등으로 관광상품을 다각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문화유산 활용, 관광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개발사례임.

- **(공항 인프라 확충·현대화) 파리공항 82억 유로 규모 현대화 사업 추진**
 - 프랑스 정부와 파리공항공사(Groupe ADP)는 '27~'34년 파리 샤를드골(CDG), 오를리(Orly), 르부르제(Le Bourget) 공항을 대상으로 총 82억 유로(한화 약 1조 3,940억 원)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공항 시설 및 여객동선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파리의 국제 항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특히 CDG공항에는 신규 탑승동 및 공항 내부 철도망 구축, 터미널 접근성 개선 등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35년까지 연간 여객 수용능력을 약 1,800만 명 확대하여 연간 약 9천만 명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방한관광 및 한국문화 동향**

- **(한류) K-컬처 확산에 따른 프랑스 내 한국 관심 및 방한수요 확대**
 - 프랑스 대중문화매체 Ça m'intéresse는 지난 8.1일 K-pop, K-드라마, 한식, K-뷰티, 웹툰 등 한국문화가 프랑스인의 일상적 문화소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 기사를 발표함. 특히 K-pop 중심의 초기 한류가 영상콘텐츠·음식·화장품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문화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프랑스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함.
 - 프랑스 내 한국문화 관련 행사도 확대되어 '26. 1월 릴(Lille)에서 개최된 한국문화행사 '123 Seollal'에는 8천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5월 낭트(Nante) K-Pop World 대회, 7월 리옹(Lyon) Korean Touch 축제 등이 개최된 바 있음. 프랑스 내 한국음식점 수도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했으며 파리에만 약 100개의 한국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됨. 또한 K-Beauty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 Monoprix, Sephora 등을 통해 유럽 내 주요 소비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의 경우 프랑스 내 200만명 넘는 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와 같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실제 방한여행으로도 이어져 동매체는 연간 16만 명 이상의 프랑스인이 한국을 여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함. K-pop·K-드라마 중심의 한류가 미식·뷰티·웹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한국문화 경험이 방한관광 관심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됨.

※ 출처: 프랑스 관광공사(Atout France), 프랑스 국립휴가수표공사(ANCV), 프랑스 생활여건연구소(Crédoc), 프랑스 여행업협회(Entreprises du Voyage), 프랑스관광업협회(Alliance France Tourisme), 파리공항공사(Groupe ADP), 주요 언론 및 주요 관광전문지(L'Écho Touristique, TourMaG, La Tribune) 등 참조